



“이정후를 주목하라”

이정후

미국 뉴욕포스트, WBC B조 주요 선수로 소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현역 빅리거'가 출전하는 유일한 국제대회다.

당연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목받지만 WBC는 '예비 빅리거'들의 경연장이기도 하다.

미국 뉴욕포스트가 9일(한국시간) “미국이 속하지 않은 B조도 주목하라”고 제안한 이유다.

뉴욕포스트는 “B조에는 한국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이정후와 일본프로야구 퍼시픽리그 2년 연속 MVP에 오른 아마모토 요시노부가 있다”고 운을 폈다.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는 올 시즌이 끝나고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빅리그 진출을 노린다.

뉴욕포스트는 “이정후는 대형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가 이끄는 보라스 코퍼레이션과 계약했다. 지난해 타율 0.349, 23홈런, 66볼넷을 올리는 동안 삼진은 32개만 당했다”고 미국 팬들에게 이정후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정후의 약점도 지적했다.

뉴욕포스트는 “한국에서의 성적은 메이저리그에서 유지하기는 어렵다.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낸 타자는 추신수와 최지만 정도”라며 “KBO 리그에서는 메이저리그 투수 수준의 구속을 경험하기 어렵다. 이정후도 ‘빅리그급 구속’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또한, 장타력도 부족하다”고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평가를 전했다.

이런 약점에도 이정후는 여전히 매력적인 타자다.

이 스카우트는 “이정후는 어느 정도 재능을 갖췄다. 콘택트 능력이 있고, 주력이 있으며, 송구 능력도 좋다. 그라운드 위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며 “타격 자세가 다소 특이하고 힘은 부족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안다. 선구안도 좋다”고 덧붙였다.

“재능·콘택트 능력·주력·송구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타자”

일본의 아마모토 투수도 극찬

“당장 빅리그서도 에이스급 선수”

뉴욕포스트는 아마모토(오릭스 버펄로스)를 향해서는 “당장 빅리그에서 에이스로 활약할 투수”라고 극찬했다.

아마모토는 2021년 18승 5패 평균자책점 1.39 206탈삼진, 2022년 15승 5패 평균자책점 1.68 205탈삼진을 기록해 2년 연속 4관왕(다승, 승률, 탈삼진, 평균자책점)에 오르고 퍼시픽리그 MVP, 사와무라상을 독식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모토는 이제 일본에서 뭔가를 더 보여줄 필요가 없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을 갖춘 투수”라며 “그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속을 시속 99마일(약 159km)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스피리터도 빅리그 최정상급 구위를 갖췄다.(뉴욕 메츠와 계약한) 센가 고다이보다 훨씬 뛰어난 투수”라고 평가했다.

이정후도 아마모토를 인정한다. 그리고 아마모토를 넘어서고자 노력했다.

이정후는 2019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중간 계투로 나온 아마모토에게 삼구 삼진을 당했다.

이후 “다음에 아마모토를 만나면 꼭 설욕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이정후는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전에 선발 등판한 아마모토에게 3타수 2안타를 쳤다.

2023 WBC 한일전은 3월 10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다.

한일 MVP이자 ‘예비 빅리거’ 이정후와 아마모토의 재대결이 성사되면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다. /연합뉴스

류지혁 “묵직한 책임감 안고 시즌 준비”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산 캠프를 가다

부상 없이 건강한 출발이 목표
셋째 아이 출산 앞 뒤 큰 책임감

KIA 타이거즈의 류지혁이 더 묵직한 ‘책임감’을 안고 긴 2023 시즌을 준비한다.

내야수 류지혁은 3년 만에 재개된 해외 캠프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 그는 ‘최고참’ 최형우, 황대인과 함께 지난달 15일 미국 애리조나 투산으로 건너와 개인 훈련을 하면서 먼저 스프링캠프를 준비했다.

건강하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싶은 바람이 담긴 발 빠른 움직임이다.

류지혁은 “시차 적응을 빨리 하고 싶어 일찍 미국으로 들어왔다. 몸이 피곤하면 다치기 쉬우니까 먼저 들어와서 훈련했다. 내 것 할 것 하면서 캠프 준비를 했다”고 언급했다.

부상 없는 준비, 건강한 시즌 출발이 류지혁의 목표다.

류지혁은 “페이스를 생각하면서 스프링 캠프를 치르고 있다”며 “작년과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 작년처럼 오버 안 하고 시즌에 맞춰 페이스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시즌을 위해 몸은 부지런히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 한 쪽은 가족이 있는 한국에 가 있다.

오는 20일이 셋째 아이 출산 예정일이다. 1994년 생인 류지혁은 일찍 결혼해 두 아들을 둔 ‘젊은 아빠’다. 이번엔 셋째 딸을 얻으면 곧 ‘다둥이 아빠’가 된다.

류지혁은 “태명이 라첼이다. 라스트첼린이라는 뜻이다. 딸을 가지고 싶었는데 성공했다(웃음)”며 “한국에 못 가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상황이 이러니까 먼저 미국에 들어오기도 했다. 내가 잘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된다”며 가장의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또 ‘첫째가(아빠가 야구선수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한다. 아이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후배들에게도 일찍 결혼하고, 애



KIA 타이거즈 류지혁이 미국 애리조나 투산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도 빨리 낳으라고 이야기한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뭔가 더 마음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책임감도 다르다”고 언급했다.

가장 책임감이 더해준 올 시즌 류지혁은 팀의 가을 잔치를 이끄는 선수로서도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그만큼 이번 캠프가 류지혁에게 중요한 준비 무대다.

올 시즌 KIA 내야에는 뜨거운 경쟁 바람이 불 전망이다.

지난해 프로 경력을 쌓은 김도영이 ‘키 플레이어’로 떠올랐고, 트레이드를 통해 코너 내야수 후

보인 변우혁이 새로 KIA 내야에 가세했다.

치열해진 경쟁에서 류지혁은 지난해 톱타자로서 보여준 모습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면서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류지혁은 “지난해 우리 팀이 포스트 시즌을 맛만 봤다. 포스트 시즌이 재미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포스트 시즌을 위해 나도 역할을 하고 싶다”며 “올 시즌 애버리지(타율)에 집중하겠다. 출루율과 수비에도 신경 쓰면서 캠프를 치르고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KBO, 경기 시간 평균 ‘3시간 4분’ 목표 스피드업 규정 강화

감독·코치 마운드 방문 30초

주자 없을 때 투수 12초 내 투구

2023 KBO가 더 빠르고 재미있어진다.

KBO가 평균 경기 시간 ‘3시간 4분’을 목표로 스피드업 규정을 강화한다.

2023 시즌 빠른 진행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먼저 마운드 방문 시간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마운드 방문시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며, 각 방문 시간은 30초를 제한한다. 30초가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은 이를 통보하고 감독 또는 코치는 즉시 덕아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기 스피드업 규정에 변화가 있다.

올 시즌부터 방문 25초 시점에 감독과 코치는 덕아웃으로 이동하고, 30초 시점에서 포수가 포구 준비를 완료해 경기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부터는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고 볼로 판정한다’는 규정의 경우 퓨처스리그에 한해 ‘경고 없이 곧바로 볼로 판정한다’가 추가된다.

이 규정은 퓨처스리그에서 시범 운영된 뒤 내년 시즌 KBO 리그 적용을 검토하게 된다.

타석에 들어간 순간부터 최소한 한 발을 타석 안에 두고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타석 이탈 제한’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를 위해 ‘엄격한 스피드업 규정 적용’, ‘적극적인 스피드업

독려’, ‘매끄러운 진행으로 신속한 경기 기여’ 등 항목이 심판 고과에 포함된다.

또 클리닝 타임 때 출장 대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단, 구단 임직원의 심판실 출입과 사적인 접촉도 금지된다.

한편 KBO는 지난해 스트라이크존 정상화, 스피드업 규정 강화 등에 나섰으며, 정규시즌 720경기 평균 소요시간(9이닝 기준)은 3시간 11분으로 2021년보다 3분 빨라졌다.

KBO는 스피드업 강화를 위해 매일 스피드업 통계를 발표하고, 구단별 경기 시간 순위를 집계해 미흡 구단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틀넘, 골키퍼 요리스 부상에 ‘초비상’

무릎 부상에 최장 8주 결장

백업 골키퍼 포스터 골문 지켜

손흥민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틀넘 핫스퍼가 수문장 위고 요리스(37·프랑스)의 부상으로 비상이 걸렸다.

영국 매체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토틀넘의 주전 골키퍼이자 주장인 요리스가 지난 주말 치러진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당한 무릎 부상으로 최장 8주 동안 결장한다고 9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리스는 무릎 인대를 다쳤다. 수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다시 그라운드에 서기까지 6~8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요리스의 공백은 토틀넘에 큰 약제다.

EPL에서 5위에 자리한 토틀넘은 4위권에 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리그 경기 외에 AC밀란(이탈리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전,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5라운드 경기도 소화해야 해 당분간 일정이 매우 빽빽하다.

베테랑 백업 골키퍼인 프레이저 포스터(35)가 요리스 대신 토틀넘 골문을 지키길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 토틀넘에 합류한 포스터는 올 시즌 EPL 1경기, FA컵 2경기, 리그컵 1경기 등 4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쳐 경기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

토틀넘은 오는 12일 오전 0시 레스터 시티와 EPL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어 15일 오전 5시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산시로 경기장에서 AC밀란과 ACL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 나선다.



요리스